

보건의료 R&D 남북공동 연구 창조경제 한 축 기대

북한 의료 붕괴 상황 수준 ... 외부 지원 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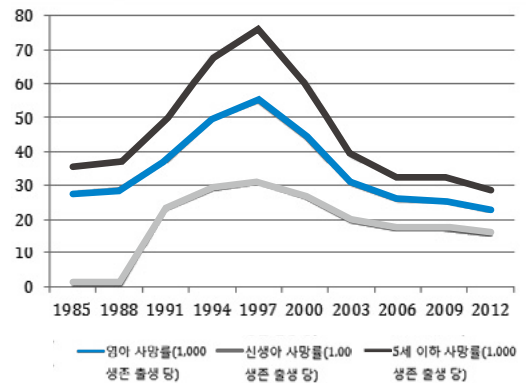
글_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신희영 소장

북한의 보건현황

북한의 보건현황은 발표된 자료로만 보아도 매우 상황이 열악하다. 북한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본 결과 실제 상황은 발표된 자료보다 더 열악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 북한의 의료는 거의 붕괴 상황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의료의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배급에 의한 사회주의 원칙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만 무상이 유지되는데 있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모자보건에 대한 지표를 보면 모성 사망과 영아, 신생아 사망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부분은 내부에서의 해결이 불가능하여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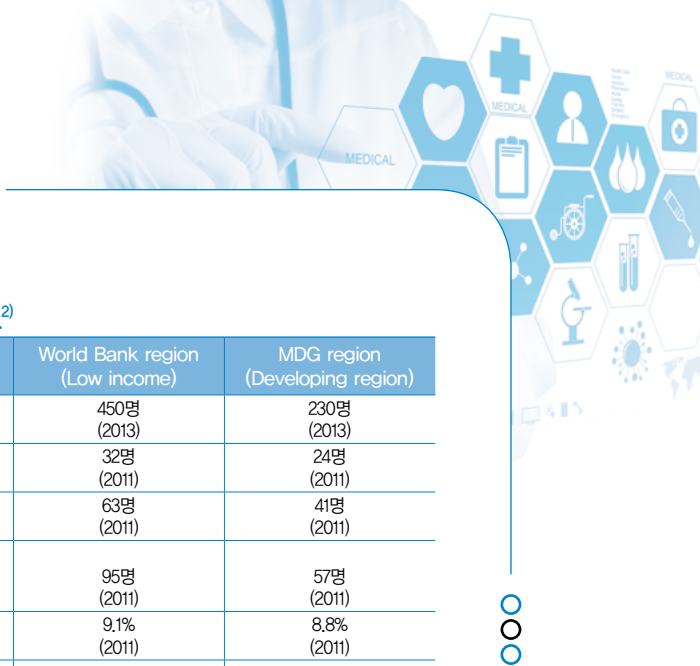
〈표 1〉 보건 지표 요약(출처 : World Bank, UNICEF SOWC)

지표	World Bank	SOWC(2006-2010)
기대수명(2013)	남: 65.6세, 여: 72.4세	
영아 사망률(1천명당, 2012)	22.7	
신생아 사망률(1천명당, 2012)	15.6	
5세 이하 사망률(1천명당, 2012)	28.8	
Contraceptive prevalence		69%
산전 진단율		최소 1번 : 100% 최소 4번 이상 : 94%
보건의료인 입회 하의 출산		100%
출산 시설 분만을		95%
모성 사망률(10만 생존 출생 건당)		북한 정부 보고 : 77 UNICEF 추정(2008) : 250
15-19세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		1
5세 이하 저체중아 비율		도시 13%, 지방 27%
개선된 상수도 이용인구 비율		100%



〈그림 1〉 영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5세 이하 사망률(자료 World Bank DB)¹⁾

1) World Bank DB,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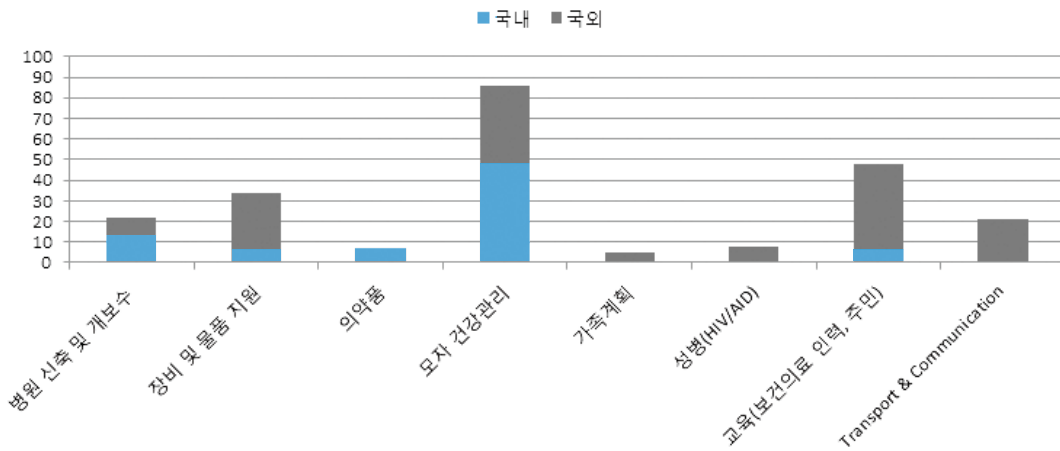


〈표 2〉 모자보건 대표지표 비교²⁾

	북한	남한	전세계	WHO region (South East Asia)	World Bank region (Low income)	MDG region (Developing region)
모성사망비 (정상출산10만명당)	87명 (2013)	9.9명 (2012)	209.7명 (2013)	190명 (2013)	450명 (2013)	230명 (2013)
신생아사망률 (출생아1,000명당)	16.2명 (2011)	1.7명 (2011)	22명 (2011)	29명 (2011)	32명 (2011)	24명 (2011)
영아사망률 (출생아1,000명당)	23.8명 (2011)	3.0명 (2011)	37명 (2011)	42명 (2011)	63명 (2011)	41명 (2011)
5세미만 영유아사망률 (출생아1,000명당)	30.2명 (2011)	5명 (2011)	51명 (2011)	55명 (2011)	95명 (2011)	57명 (2011)
급성영양불량률	4% (2012)		8% (2012)	14.4% (2011)	9.1% (2011)	8.8% (2011)
만성영양불량률	27.9% (2012)		25.7% (2012)	35.7% (2011)	38.2% (2011)	28.0% (2011)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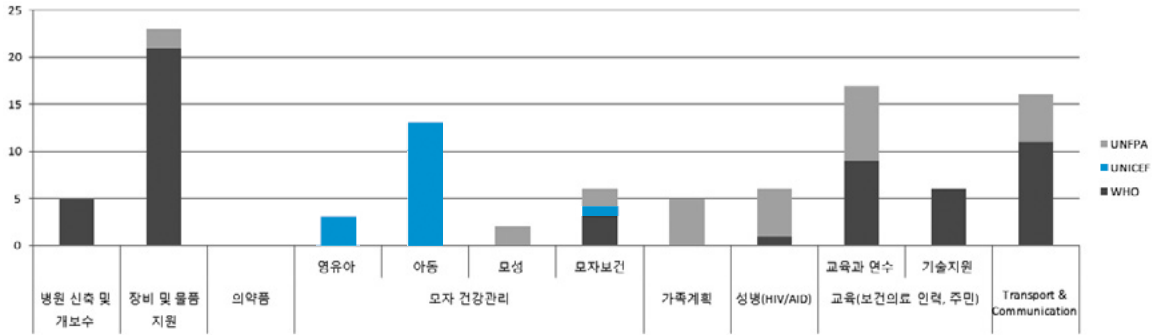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된 외부에서의 도움은 모자건강관리, 보건의료인력 교육, 병원신축 및 개보수, 장비 및 물품지원, 의약품 지원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국내의 여러 NGO와 WHO, UNICEF, UNFPA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지원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중 국내의 지원은 2009년 이후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고 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한다고 선언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원이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한 국제기구의 지원도 점점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그림 3] 국내외 모자보건 지원현황

2) World Bank data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nd causes of maternal mortality during 1990–2013
 Levels and trends in child mortality report 2012,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 to 2013
 Level and trends in child malnutrition 2012
 2010–2012년 영아사망 모성사망 출생전후기 사망통계-통계청



[그림 4] 국외 국제기구별 모자보건 세부지원 현황

새로운 지원방법의 필요성 – 보건의료 R&D로 변화

2014년 7월 이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매우 적극적인 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나 북한은 오히려 더 문을 걸어 잠그고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민화협과 북민협의 중국에서의 만남 시에 북한은 더 이상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서는 지원을 거부하고 교류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에서의 남과 북의 교류를 제안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자세는 원조를 받는 지원국에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리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만 원조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봐도 이러한 방식으로 전환을 하여 별로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0 여년을 외부와 교통 없이 지내온 유일한 국가이고 의학적인 면에서도 매우 유일한 환경으로 북한의 질병과 보건상황을 잘 연구하여 보면 아주 많은 귀중한 의학적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의학적 연구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다. 우리의 연구진과 북한의 연구진이 같이 또는 국제기구의 중재 하에 공동연구를 진행한다면 매우 많은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적인 지원을 이러한 보건의료 분야의 R&D로 바꾸어서 진행을 한다면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창조경제의 한 부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

남과 북은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이러한 각자가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지식의 창조, 새로운 의료장비의 개발 등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교류를 지속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며 이러한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보건의료협정 등의 보호막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통일을 위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의료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표 3〉 남북협력 비중에 따른 분야별 보건 의료 R&D 과제의 예시(점진적 교류협력 증진 및 통합 시)

남북협력비중 (연구성격) 분야	無 (사전적 연구)	小 (교류협력 개선 목적 및 남북 공통이해 연구)	中 (교류협력 및 지원발전을 위한 연구)	大 (남북한 강점을 활용한 협 력 연구)
1) 보건 의료 포괄영역	북한 보건 의료 현황, 통일국가 보건 의료 통합 연구 (독일 등)	남북 보건 의료 협정*	보건 의료 법률, 제도 동질화	보건 의료 재정 및 문화, 윤리 통합
2) 보건 의료 용어 및 학술 교류	남북 공동 의학 용어 편찬 사업		북한 특화 발전 분야(고려 의학 등)와 남한 강점을 접목한 공동 연구	
3) 남북이질성 극복향한 보건 의료 지원	단계적 보건 의료 인도 지원 (영양·식량, 일차 의료 및 모자 보건, 감염성 질환, 필수 의약품 지원)		단계적 보건 의료 개발 지원 (장비, 의료 및 의약품 시설 현대화)	
	북한 수요 및 현황을 반영한 적정 의료 기술, 기타 대북 지원 연계된 R&D 지원 등			
4) 질병 부담 파악·관리	북한 이타주인 건강 문제 파악 및 정착 시기에 따른 건강 관리 체계 구축	감염성 질환 관리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남북 건강 현황 조사 및 비교 연구	비감염성 질환 및 건강 증진에 관련 공동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구	
5) 보건 의료 인력 동질화	북한 이타 보건 의료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남북 보건 의료 교과 과정 동질화 (의·치·간호대 등)	남북한 의료 인력 재교육 지원	남북 의료 인력 면허 및 보수 교육 제도 정비
6) 통합 재원 준비	남북 보건 의료 통합 재원 확충 (다/양자 개발 기구, 남북한 공동 기금 등)			

